

# 전남도청 카누팀 전국선수권 '금빛 물살'

최지성 금1·은2 획득  
여자부 4인승서도 금메달  
남중·대학부 등서도 선전  
전남 총 메달 12개 수확

전남도청 카누팀이 전국카누선수권대회에서 금빛 물살을 갈랐다. 전남도청 카누팀은 지난 16일 충남 부여 백마강 카누장에서 열린 제33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에서 남·여 일반부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지성 남일반부 C-1 200m에서 42초638의 기록으로 오해성(울산, 43초 035)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최지성은 C-1 1000m에서도 4분22초409의 기록으로 김이열(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어 2위로 끝났고, C-1 500m에서도 2위로 은메달 2개를 추가했다.

임성화·김소현·이민아·이진솔은 여일반부 K-4 200m에서 37초 736의 기록으로 경남체육회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연이어 임성화와 김소현이 조를 이뤄 출전한 K-2 500m에서도 은메달, K-2 200m에서는 동메달을 따냈다. 전남도청 카누팀 외에도 전남대표로 출전한 삼호중학교와 목포대학교 카누팀, 전남체육회 카누팀도 메달을 목에 걸었다. 삼호중학교 홍정현과 박도영은 남중부 K-2 200m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목포대학교 신수복, 구도성, 최찬희, 장원우는 남대부 K-4 200m와 500m에서 호흡을 맞추며 은메달 2개를, 신수복과 구도성은 K-2 200m에 출전해 동메달을 추가로 목에 걸었다. 전남체육회 전략종목 카누팀 정유성과 송지웅은 남일반부 K-2 200m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하며 전남 카누선수단은 금메달 2개 포함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청 카누팀. 왼쪽부터 이민아, 김소현, 이진솔, 임성화.

## 광주체육회 박하름·정다연 다이빙 3m 싱크로 우승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을 해체하며 1년 만의 실전 무대에서 국내 정상임을 재확인했다. 우하람은 17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0회 김천 전국수영대회 닷새째 다이빙 남자 대학·일반부 1m 스프링보드에서 376.05점으로 우승했다. 2위는 김지욱(강원도청·367.90점), 3위는 김진용(강원도청·346.65점)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전국체전 이후 1년 만에 열린 전국수영대회였다. 우하람은 기본 동작부터 고난도 트리스트 동작까지 골고루 시도하며 성적보다는 기량 점검에 중점을 두고 무난히 1위에 올랐다. 2인조 경기인 여자 3m 싱크로에서는 박하름·정다연(광주시체육회)이 230.28점으로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뺨 맞은 박재범 복수 실패

### 정찬성, 오르테가에 판정패

'코리안 좀비' 정찬성(33·코리안좀비MMA)이 UFC 페더급 타이틀 도전의 길목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정찬성은 18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야스 아일랜드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180' 메인이벤트에서 브라이언 오르테가(29·미국)에게 5라운드 심판전원일치 판정패를 당했다. 테이나 화이트 UFC 대표는 이 경기 승자가 UFC 페더급 챔피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의 타이틀 도전권을 얻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찬성은 마지막 산을 넘지 못하고 6패(16승)째를 당했다. 다시 타이틀에 도전하려면 먼 길을 돌아 가야 한다. 오르테가는 UFC 랭킹 2위로 정찬성(4위)보다 랭킹이 두 계단 높다. 정찬성은 전략에서도 오르테가에게 철저히 밀렸다. 오르테가는 잭과 킥으로 거리 싸움을 완전히 장악했다. 근거리 타격이 장점인 정찬성에게 타격으로 맞대응하지 않았다. 정찬성이 저물적으로 들어오면 테이크다운과 변칙공격을 썼었다. 수 싸움에서 밀린 정찬성은 이렇다 할 공격을 해보지도 못하고 완패했다.

/연합뉴스

# '전국 최강' 전남 공도 시즌 2관왕 '명중'

시도대항 대회 개인·단체전 제패  
2개 대회 연속 우승...광주는 3위

전남공도협회 선수단이 두 개 대회 연속 개인전과 단체전을 휩쓸며 올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전남공도협회는 지난 15일 강원도 평창군 태화정에서 열린 제59회 전국시도대항 공도대회에 출전해 남일반부 단체전에서 금메달, 개인전에서 김송현(신안 용항정)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는 단체전에서 3위에 머물렀다. 지난 7월, 경북 안동 영랑정에서 열린 제53회 전국공도종별선수권대회에서도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백발백중으로 모두 우승을 차지한 전남공도협회는 최고 권위의 대통령기대회까지 모두 제패하며 전국 최강 실력을 뽐냈다.

이기효·하선범(이상 진도 창덕정), 김경하·김송현(이상 신안 용항정), 안용환(강진 관덕정), 김도성(나주 인덕정) 고민구(고흥 흥무정)가 출전한 단체전에서 110종을 기록하며 100종을 기록한 전북을 앞지르며 2관왕을 확정지었다. 광주(최재훈·홍영·신용식·윤일현·김연수·이현태·김성탁)는 3위를 기록했다. 개인전에 출전한 전남공도팀은 김송현이 25발 중 24발을 명중시키며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 최재훈은 4위에 올랐다. 김송현은 1순부터 4순까지 모든 화살을 명중시켰으나 마지막 5순에서 한발이 아쉽게 빗나가 퍼펙트 우승을 놓쳤다. 지난 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퍼펙트 우승을 달성한 고민구와 김도성은 개인전에서 각각 22종을 기록하며 장려상을 수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국시도대항 공도대회에서 우승한 전남 공도협회 선수단.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블랙스톤 골프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B금융스타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효주가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 김효주 압도적 우승

2위 고진영과 8타차... 시즌 마지막 메이저 KB금융 스타 챔피언십 제패

김효주(25)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0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김효주는 18일 경기도 이천시 블랙스톤 골프클럽(파72·673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1개와 보기 4개를 묶어 3오버파 75타를 쳤다. 3라운드까지 공동 2위에 10타 앞서 우승을 '예약'했던 김효주는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를 기록, 2위 고진영(25·1언더파 287타)을 8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1라운드 공동 선두, 2~3라운드 단독 선두에 이어 마지막 날도 리더보드 맨 위를 지켜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나서지 않고 국내에서 경기하는 김효주는 6월 롯데컨타타 여자오픈에 이어 시즌 2승을 거뒀다.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에서는 2014년 이후 6년

만에 정상을 탈환한 그는 KLPGA 투어 통산 승수를 12승(아마추어 시절 1승 포함)으로 늘렸다. 우승 상금 2억 4000만원을 거머쥔 김효주는 시즌 상금 6억5618만원을 쌓아 상금 1위로 도약, 미국 진출 전인 2014년 이후 6년 만의 상금왕 등극의 발판을 닦았다. 평균 타수에서도 선두를 지켜 '다관왕' 도전에도 시동을 걸었다. 김효주는 전반을 마친 뒤에 2위 고진영에게 8타, 공동 3위에는 10타 차로 앞서며 일찌감치 승부가 기울었다. 11번 홀(파4)에서 한 타를 잃고 마지막 홀(파5)에서도 보기가 나왔지만, 난코스에서 다른 선수들도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하며 무난하게 우승을 굳혔다. 김효주, 고진영에 이어 이정은(24)이 공동 3위(이븐파 288타)에 오르고, 허미정(31)은 6위(1오버파 289타)에 자리해 LPGA 투어에서 활동하던 선수들이 리더보드 상단에 포진했다. 최혜진(21), 장하나(28) 등은 공동 7위(2오버파 290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 신지애 올 시즌 첫승

후지쓰 레이디스 우승...JLPGA 투어 통산 25승·상금 10억엔 돌파

신지애(32·사진)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후지쓰 레이디스(총상금 1억엔)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신지애는 18일 일본 지바현 도쿠 세븐 핸드레드 클럽(파72·665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최종합계 7언더파 209타로 정상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에 머물다 이달 초 일본여자오픈부터 JLPGA 투어 대회에 나선 신지애는 3번째 대회에서 시즌 첫 승을 수확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어스 먼다민컵 이후 1년 4개월 만에 트로피를 추가, JLPGA 투어 통산 우승을 25승으로 늘렸다. 우승 상금 1800만엔(약 1억9600만원)을 챙긴 신지애는 일본 통산 상금 10억242만1776엔을 기록, JLPGA 투어 역대 6번째로 상금 10억엔을 돌파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배선우(26)가 후쿠야마와 함께 신지애에게 두 타 뒤진 공동 2위(5언더파 211타)에 올라 지난



주 스탠리 레이디스에 이어 2주 연속 준우승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담보
2관	소리도 없이
3관	물랭이
4관	담보
5관	담보, 폰조, 국제수사
6관	소리도 없이
9관	담보, 폰조, 나의 이름
7관 씨네카를	국장판 오귀워차: 포에버 프렌즈 안녕까지 30분, 애프터: 그후
8관 씨네카를	그린랜드, 언힌지드, 검객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화회관 갤러리

회관 개관29주년 기념 특별기획  
백건우와 슈만  
2020. 10. 20.(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GAC기획공연 FOCUS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2020. 10.16.(금) 19:30, 17(토) 1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